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6.04.0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유럽의회 의원들의 호라이즌 유럽 제안에 반박(3.26)

- 집행위 DG RTD 르메트르 총국장이 복잡성·비용 증가 및 집행위 권한·재정책임 약화 우려로 엘러의원의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전문가 위원회 도입 제안에 반대하며 FP10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
- 반면 이를 처음 제안한 헤이터(Heitor)는 유럽의회와 일부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서 이를 추진할 만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, 전문가가 과제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모델을 확대할 것을 주장

○ 호라이즌 유럽 예산 재배분 계획에 연구계 반발 확대(3.25)

-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예산 재조정을 통해 준회원국의 참여에 따른 불균형을 향후 보정하겠다고 설명했으나, 연구계는 연간 단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비판
- 연구계는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 배제, 글로벌 연구인재 유치 약화, 연구 경쟁력 약화, 정책 신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

○ CESAER 보고서, 유럽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력 강화 및 신진연구자 지원 사례 제시(3.30)

- 유럽대학협의체 CESAER의 최근 [보고서](#)는 유럽 이공계 대학들의 연구 경력 강화 및 신진연구자 지원 사례를 분석. 많은 유럽 대학들이 이미 고용 안정성 강화, 채용 관행 개선,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조치를 이행중
- 대학들은 멘토링·경력교육·산학연계·창업지원 등을 통합한 프로그램 및 혁신생태계를 구축했으며, 또한 경력계획 의무화, 성별·다양성 관리, 단계별 역할 정의를 통해 연구경력의 구조화와 투명성 강화를 추진

- (기타) ▲젠트대, 이스라엘과의 협력 문제로 유럽 연구 프로젝트에서 철수(3.28)
▲EU, 신속 방위 혁신 프로그램 AGILE 제안(3.25) ▲EU, 지식 가치화 평가 프레임워크 발표(3.30) ▲벤처 창업 지원 박사 프로그램 모집 개시(3.31)